

개 요

파킨슨병 또는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이란 진전증, 근육의 강직 그리고 몸동작이 느려지는 운동완서를 세가지 중요한 증상으로 하는 운동질환(movement disorder)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신경과(neurology)에서 다루는 중요한 질환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병의 경과에 따라 한가지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고 세가지 증상이 모두 한꺼번에 나타날 수도 있으며, 신체의 한 부분 또는 여러 부분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 세가지의 증상들이 모두 함께 나타나면서 그 중 어느 한 증상이 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다른 증상없이 한가지의



이상복  
(서울의대 교수)

가 아닌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많은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파킨슨병 환자는 약물치료만으로도 많은 호전을 보이고 초기부터 치료를

을 자세히 기록하였고 이러한 증상들은 뇌의 이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견을 기술하였으나 이 병에 대한 치료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이러한 파킨슨병이 언제부터 있어왔는가에 대한 확실한 자료는 없으나 아주 오래 전인 고대사회에도 이 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케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 파킨슨 이전의 어떤 기록도 특징적인 증상들을 모두 기술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파킨슨병을 약물로 치료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처음 나타나게 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신경과 의사인 샬코(Charcot)에 의하여 아트로핀이라는 약물이 처음으로 파킨슨병의 치료에 이용되었고 이

라고 알려진 약물들이 그것들인데 아트로핀과 비슷한 약리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엘-도파(L-dopa)라는 약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파킨슨병의 원인이 뇌 안에 있을 것이라던 제임스 파킨슨의 생각은 금세기 초에 와서야 확인되었고 사망한 파킨슨 환자의 뇌를 세밀하게 연구한 결과, 정상인의 뇌에서는 검게 보이는 뇌의 일부 조직이 파킨슨병의 환자의 뇌에서는 하얗게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최근에는 주위의 여러 조직과의 연결을 가지고 있는 특정 세포들이 파킨슨병의 환자들의 뇌에서는 많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파킨슨병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1917년에서 1927년 사이의 일로 이때 전세계적으로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던 일종의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유행하였는데 이때 감염된 바이러스는 주로 중추신경계에 침입하여 뇌와 뇌막에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그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환자들 중 많은 연구를 진행중입니다. 요즈음에는 이러한 뇌염 후 파킨슨병의 발생은 거의없는 것으로

러한 파킨슨병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특수 병원이 전세계 각국에 많이 세워져 파킨슨병의 치료와 연구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 높아져 파킨슨병의 환자들과 그 보호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서로 치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의 발병률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의 발병률 및 유병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으나 여러 나라에서 현재 조사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노령 인구의 증가 및

특정부위 뇌세포 파괴로 발병

증상만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이런 경우 파킨슨병의 초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파킨슨병 이외의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환자에 따라 나타나는 진전(떨림)의 정도가 모두 다르지만 운동완서나 강직, 자발적 운동장애 등의 다른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파킨슨병은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질병으로 20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에서 파킨슨병의 진단을 받았던 환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나라의 신경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신경과 전문의들이 활동함으로써 우리나라에도 무척이나 많은 파킨슨병의 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확한 통계적 자료는 없으나 많은 환자들이 올바른 진단도 받지 못한 상태로 합병증 등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망, 즉 노인성치매 등으로 생각하고 집에서 간호를 하다가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방문하게 된 많은 환자들 중에서도 치매

시작하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로써, 직접 환자들을 대하는 신경과 의사들로서는 쉽게 나중에는 폐렴이나 여러가지 사고 등으로 사망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 환자들은 병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개의 경우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 스스로가 병의 치료를 위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환자 보호자가 병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의사와 의논하여 병을 이겨 나갈 때보다 나은 생활이 가능합니다.

파킨슨병에 대한 역사적 고찰

파킨슨병은 1817년 영국의 의사인 제임스 파킨슨(James Parkinson)에 의해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기술되었습니다. 그는 저서인 'Essay on the Shaking Palsy'에서 '떨리는 마비에 관해서'입니다-자신이 치료하고 있던 환자들과 거리에서 비슷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환자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관찰하여 병의 증상들

아트로핀은 2차 세계대전까지도 유일한 치료법이었습니다. 이후 독일에서 치명적인 독성을 가진 가지과의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벨라돈나(belladonna)라는 물질을 치료에 이용하였고, 불가리아



지방에서 파킨슨병을 연구하던 이탈리아의 신경과 의사인 주세페 파네그로씨(Giuseppe Panegrossi)에 의해 결정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쓰이던 '불가리아-이탈리아' 처방은 나중에 독일에서 좀 더 발전되어 왈터 볼러(Walther Voller)에 의해서 과학적인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합성된 약물이 파킨슨병의 치료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이며 항콜린성약제

로 생각되어지고 있으며, 과거의 스페인 독감처럼 뇌와 뇌막을 침범하여 파킨슨병을 유발시키는 바이러스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는 뇌의 '특발성' 또는 일차성 퇴행성 질환으로 뇌의 특정부위에 있는 뇌세포가 바이러스의 감염이 아닌 다른 이유로 파괴됨으로써 나타나는데 의견상으로는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통계 결과에 의하면 대략 65세 이상의 인구 100명당 1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성별에 따른 발병의 차이는 없습니다. 발병률의 지역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대략 인구 10,000명당 1명 꼴로 발병하여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킨슨병

평균수명 연장으로 증가추세

700국 음성정보(각 성인병 분야총망라) 안내

◎본협회에서는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성인병예방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사업으로 음성정보를 개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성인병질환의 예방 및 치료관리대책 등을 전문학자로 하여금 직접 녹취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성인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700국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제공종목(병류)

대표전화 700-6939

- |          |             |                      |               |                   |
|----------|-------------|----------------------|---------------|-------------------|
| 1. 고혈압   | 10. 유암(유방암) | 19. 간경변증             | 26. 기관지천식     | 35. 소아폐질환         |
| 2. 당뇨병   | 11. 혈액암     | 20. 류마로이드 및 만성퇴행성관절염 | 27. 폐기종       | 36. 성인병운동요법       |
| 3. 동맥경화증 | 12. 대장암·직장암 | 21. 골조송증(골다공증)       | 28. 기관지확장증    | 37. 성인병 식사요법      |
| 4. 심장병   | 13. 췌장암     | 22. 비만증              | 29. 간질성폐질환    | 38. 노인성질환         |
| 5. 암 개요  | 14. 후두암     | 23. 소화성궤양            | 30. 갱년기정신신경장애 | (순환기·치매·신경계·우울증)  |
| 6. 위암    | 15. 암치료법    | 24. 기능성 위장장애         | 31. 소아고혈압     | 39. 비노기계질환        |
| 7. 간암    | 16. 갑상선질환   | (과민성 대장증후군 포함)       | 32. 소아당뇨병     | (전립선염·전립선비대증·방광염) |
| 8. 자궁암   | 17. 뇌졸중     | 25. 기관지염             | 33. 소아정신장애    |                   |
| 9. 폐암    | 18. 만성신장병   |                      | 34. 소아비만증     |                   |

※각 질환별 일부와 정보제공이 안되는 것은 단시일내에 제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